

'어등산 그랜드 스타필드' 착공 본격화...116억 이행보증금 납부

땅값 계약금 86억 15일까지 납부 광주 현지법인 설립 등 절차 순조 필수시설 조성 2030년 개장 목표

신세계프라퍼티가 어등산 관광단지 내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건립을 위한 협약 이행보증금을 납부하는 등 본격적인 착공 절차를 밟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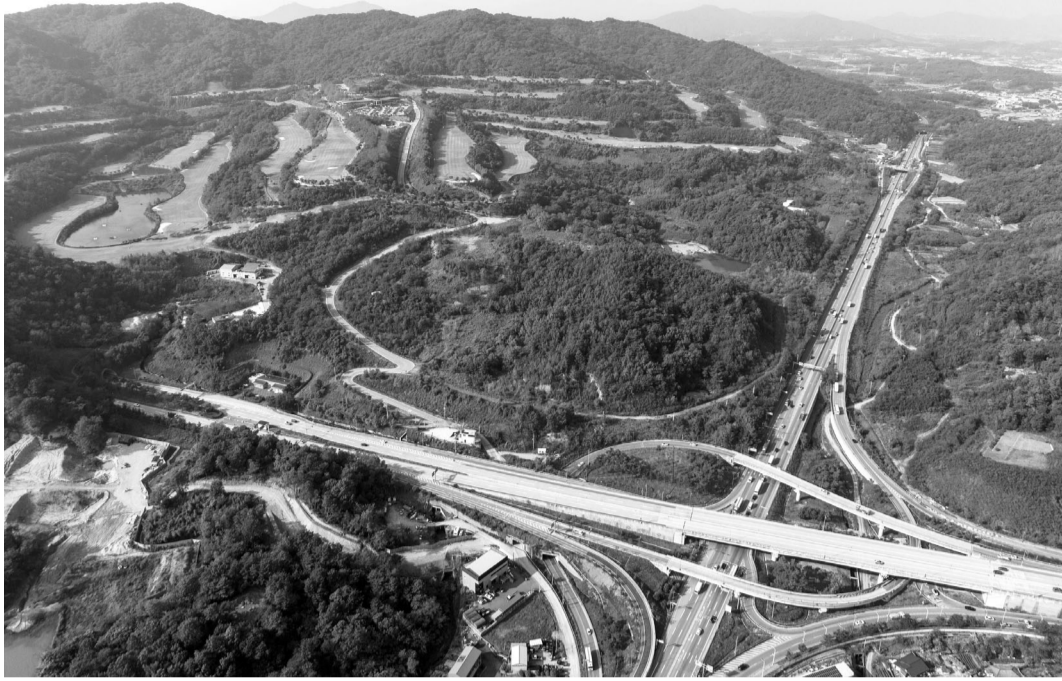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신세계프라퍼티는 지난 8일 광주 도시공사에 116억원 규모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했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오는 15일까지 땅값의 10%인 86억원도 계약금 형식으로 납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지난해 12월 22일 광주 도시공사와 협약 당시 이행 보증금 635억원을 단계별로 착공 전에 납부하고, 땅값 860억원 가운데 계약금을 포함한 240억원을 올해까지 우선 납부하기로 했다.

어등산 관광단지 부지 면적은 축구장 58개를 조성할 수 있는 41만 7531㎡(12만6000평)이며, 사업은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단지 보행로·도로 기반 시설과 토목공사, 2단계는 별첨도서관·스마트 팜·보타닉가든·콘도 등 필수 시설과 스타필드를 조성하고 2030년 개장이 목표다. 3단계는 2033년까지 레저타운과 부대시설을 준공한다. 총 사업비는 1조 3403억원이다.

광주시는 1~3단계 공사를 시작하기 전 각각 이행 보증금을 분납하기로 협약한 것에 따르면 1차 납부는 1단계 공사의 시작을 공식화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신세계프라퍼티는 계약일로부터 90일 안에 만들기로 협약한 현지 법인 구성이 완료되면 곧바로 착공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세계프라퍼티측은 특히 관광 필수 시설 우선 준공을 위해 2025년 말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관



신세계프라퍼티는 지난 8일 어등산 관광단지 내에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를 조성하기 위한 협약 이행보증금을 납부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휴양·문화·운동·오락시설 조성을 상가·레저타운 등 수익시설보다 먼저 완료할 방침이다. 이는 '돈 되는 골프장'만 조성해 운영 중인 기존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자처럼 공익적 관광 필수시설 조성을 포기하는 이른바 '뒤편성 개발 사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신세계프라퍼티는 또 지역민과 함께 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도 적극 운영하겠다는 의지다. 일단 어린이 특화 도서관인 별첨도서관을 기부채납하고, 지역 상권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소상공인 지원 등이다.

광주시는 이른바 '복합쇼핑몰 3중 세트' 중 하나인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가 본격 운영되면 연간

관광·쇼핑 등에 따른 유입 2830만명, 경제적 파급 효과 20조3000억원, 고용유발 11만 5000명 등 긍정적 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기자회견과 차담회에서 "이른바 '복합쇼핑몰 3중 세트' 중 어등산(스타필드)은 협약 이행 절차는 진행 중에 있으며, 전방·일선방직 부지(더현대 광주)는 오는 6월을 목표로 지구 단위 변경 계획을 고시하면 개별 건축물 인허가 절차로 들어갈 것"이라며 "또 신세계백화점 확장장과 맞물려 있는 터미널 개발 등과 관련 해선 오는 15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선진 현장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전남 극한호우 시 '긴급재난문자' 발송

5월15일부터 시범운영...수도권은 5월부터 정식 운영

5월부터 광주와 전남에도 극한호우가 내리면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기상청은 여름 방제기상 대책 기간이 시작하는 5월 15일부터 광주와 전남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 시범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수도권에 대해서 같은 날 정식 운영 체제로 전환한다.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강수량이 50mm면서 동시에 3시간 강수량이 90mm인 경우'와 '1시간 강수량이 72mm인 경우'에 기상청이 직접 발송한다.

호우주의보·경보가 많은 비가 올 것을 사전에 경고하는 제도라면, 극한호우 긴급재난문

자는 많은 비가 내렸으니 이어지는 피해에 대비하고 대피 등 안전 확보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차원에서 발송된다.

작년 6월 27일 전남 합평군에 많은 비가 내려 하천 수문을 열고자 집 밖에 나섰던 60대 여성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는데, 기상청에 따르면 당시 신고(오후 10시 32분)가 이뤄지기 약 1시간 전(밤 9시 28분)에 이미 합평군 강수량이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충족했다.

전남도가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대상이었다면 사전에 위험을 경고해 인명피해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

전남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 인상

12년만...292억원 투입 아동양육비 지급 기준 등 완화

전남도가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생활지원금'을 12년만에 인상했다. 생계·의료 급여 수급세대는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비수급 세대는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각각 높였다.

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도록 신규로 공공임대주택(10호)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소득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해 출산에 도움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9일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지난해보다 13% 늘어난

292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60%(2인 기준 221만원) 이하에서 63%(2인 기준 232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고등학교 3학년 12월까지로 연장해 고등학교 재학 동안 지원을 계속한다. 지원 금액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자녀가 영아인 청소년 한부모(중위 65%)는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전남지역 저소득 한부모는 7545세대 1만9417명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물가상승률 반영...국민연금 수령액 3.6% 오른다

국민연금 지난해 수익률 역대 최고 장애인·사학·군인 연금 등도 올라 기초연금 33만4810원으로 늘어나

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올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연금 수령액이 기존보다 3.6% 오른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해 작년 수익률은 100조원, 기금 적립금은 1000조원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는 약 649만명이 지난해

물가상승률(3.6%)만큼 오른 기본연금액을 이달부터 받게 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지급액을 조정한다.

공적연금 수급자들이 물가 인상에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인 62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기존보다 3.6% 오른 64만232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기본연금액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마찬가지로 3.6%가 오른다.

이렇게 되면 올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은 29만 3580원, 자녀·부모가 받는 연금액은 19만566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0만200원, 6790원씩 인상

된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올해 약 701만명)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이달부터 3.6% 오른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지난해 32만3180원이던 기초연금은 올해 33만4810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작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된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광주 2022년 자살률 10만명당 25명...광역시 중 최저

광주시가 다양한 시민 안전정책에 힘입어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자살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 분석 결과, 광주지역 자살률은 2021년 인구 10만명당 26.4명에서 2022년 25명으로 1.4명(5.3%) 줄었다. 서울(21.4명)을 제외한 6개 광역시 중 가장 낮았으며, 전국 시도 중에서는 4번째로 낮은 수치다. 전국 평균은 25.2명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자살률 감소를 위해 경찰청·국립나주병원·거점 정신의료기관 4곳과 함께 정신 응급 대응 기반 시설 확대,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회선 확대, 빚고을 생명지구대 운영, 자살유가족 자조모임 지원 등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

해왔다.

올해는 자살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현을 목표로 자살 예방과 24시간 정신질환자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자해와 타해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의 응급 입원 증가 추세에 따라 거점 정신 응급의료기관을 4곳에서 6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자살예방센터 위기 상담 인력 증원, 자살 유가족 지원 확대, 생명사랑약국 지정, 유해 정보 차단과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순옥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정신 응급체계 기반 시설을 강화해 자살과 정신 응급 상황으로부터 안전한 광주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개발부지 매매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시흥대로변

매매금액 : 280억
대지면적 : 1,379㎡(417평)
용도지역 : 준공업지역

- 서울과 경기 서남부권을 잇는 시흥대로 광대로변에 위치한 자산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과 신안산선 개통 예정으로 더블역세권 위치
- 매도자 명도조건이며, 제소전화해 완료
- 추천용도 : 오피스텔 및 근생 개발, 자동차전시장 및 판매장

대표 번호 02-554-9685
010-4484-8110

(주)알스퀘어에셋부동산중개 | 대표 염 정 오
11680-2019-00486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1 3층 (역삼동, 아남타워)

뭣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뭣 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권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자본감소공고

본 회사는 2024년 1월 9일 총사원결의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720,000좌에서 20,000좌로, 자본의 총액 금 7,200,000,000을 금200,000,000원으로 감소하기로 하고 그 방법으로 700,000좌를 유상소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0일
대상에셋유한회사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92(서석동)
대표이사 김기중

군산시 수송동 7층(상업지구)매매

840㎡ 바닥628㎡ 대형건물
의료기관4개입주 메디칼빌딩

월 3천7백만원.
수익률 6.3%
은행 36억5천.보10억

매매가
80억 (현금34억)

010-3646-8700(직거래)